



4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4.9	4.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31.66	1,224.45	↑ 0.59	↑ 11.58	757.94 '20/04/10	1,242.38 '21/04/07
인니	자카르타종합	6,070.21	6,011.46	↑ 0.98	↑ 1.52	4,480.61 '20/04/16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9,591.32	50,029.83	↓ -0.88	↑ 3.85	30,028.98 '20/05/1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50.68	3,484.39	↓ -0.97	↓ -0.64	2,783.05 '20/04/1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36.58	2,262.08	↓ -1.13	↓ -3.98	1,707.46 '20/04/13	2,468.66 '21/02/19
홍콩	H	10,977.37	11,217.41	↓ -2.14	↑ 2.23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698.80	28,938.74	↓ -0.83	↑ 5.39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31.88	3,112.80	↑ 0.61	↑ 8.99	1,825.76 '20/04/13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4.9	4.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6	2.44	↑ 2.00	↓ -12.00	2.20 '21/01/15	3.60 '20/04/17
인도네시아	6.46	6.69	↓ -23.20	↑ 57.40	5.89 '20/12/30	8.12 '20/05/06
인도	6.02	6.17	↓ -14.90	↑ 15.2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1	3.20	↑ 1.10	↑ 6.40	2.48 '20/04/29	3.36 '20/11/19
한국	2.03	2.05	↓ -2.70	↑ 30.3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4.9	4.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63.00	23,073.00	↓ -0.04	↓ -0.15	22,970.00 '21/02/08	23,527.00 '20/04/09
달러-루피아 (IDR)	14,565.00	14,525.00	↑ 0.28	↑ 3.67	13,878.00 '20/06/05	15,880.00 '20/04/09
달러-루피 (INR)	74.75	73.33	↑ 1.93	↑ 2.29	72.33 '21/02/24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55	6.57	↓ -0.22	↑ 0.39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1.00	1,127.55	↓ -0.58	↑ 3.17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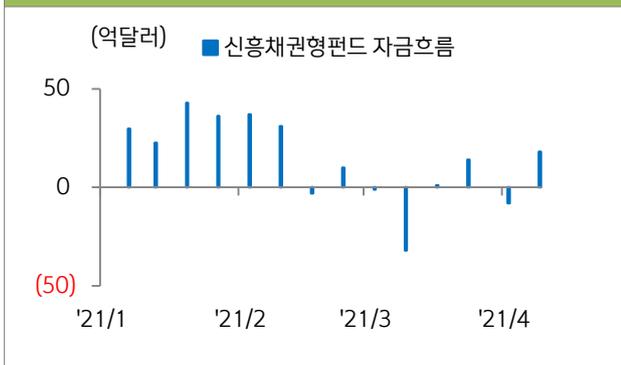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美 금리 상승세 둔화에 따라 다소 안정을 찾은 인도네시아 채권금리

- 3월 FOMC에서 2023년까지의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 중간 값이 현수준 동결로 재확인되고, 연준 의장 및 연준 위원들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재확인시켜 주면서 **연초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대인플레이션과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다소 안정을 찾았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美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신흥국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흐름도 다시 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4월 들어서는 다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 비중도 하락세가 제한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다시 6.5%를 하회하였음**.
- 미국채 금리의 상승과 이에 동반된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였지만, 인도네시아는 3월에도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루피아화 환율도 달러당 14,000~14,500 루피아 범위 내에서 낮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환율 안정화 차원에서의 통화정책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 안정된 환율과 물가, 동일 국가 신용등급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신흥국 채권형 펀드 자금 추이



자료: EPFR

美 10년물 채권 금리 및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EPFR

외국인 인니국채 누적 순매수 추이(연초이후)



자료: Bloomberg

외국인의 인니 국채 보유비중 및 채권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대형 차량 판매를 위해 세금 감면 확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기존 1,500cc 미만 차량에 대한 사치세 감면을 2,500cc 미만 4륜 구동 차량에까지 확대하였음. 대신 국내 생산 부품 사용 비중 60%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어 국내 제조업 부문 승수효과가 큰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반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적용 받는 대상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산층을 상대로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재무부에서는 설명하였음.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경제 상황에서 중산층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는 기존에는 2월부터 1,500cc 미만의 엔진을 가진 세단과 2륜 구동 차량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2,500 cc 미만의 엔진을 가진 국내 부품 사용 비율이 60%를 넘는 4륜 구동 차량에 대해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사치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12.5~50% 수준의 감면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음. 2,500cc 미만 엔진 승용 차량에 대한 기본 사치세는 10~40% 수준이었음.
- 인도네시아에서의 차량 판매는 코로나19 시작 이후로 급락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2020년 연간 차량 판매는 532,000대 수준으로 2019년 대비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음. 인도네시아의 차량 시장은 도요타, 다이하츠, 미쓰비시,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음.



인니 정부, 2분기 전년대비 8%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1분기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의 흐름이 일부 지속되었겠지만 2분기 부터는 기저효과와 여러 산업 부문의 생산 재개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7~8%의 성장이 나타나는 등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재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2분기에는 전년대비 7~8%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2021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전망 업데이트 웹세미나에서 재무부의 재정 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 정책 센터장을 맡고 있는 Hidayat Amir는 2분기에는 지난해 2분기의 -5.3% 성장의 기저효과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7~8%의 성장 전망 수준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말하였음.
-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시멘트와 자동차 판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산업 가운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몇몇 산업들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성장률 개선이 확실시 된다고 그는 말하였음.
- 그는 2021년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 영향으로 여전히 전년대비 -1.1~-0.1%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중앙은행, 경제와 금융 부문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노력할 것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QRIS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확대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결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지원하면서도 사이버 보안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화를 위해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지원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중앙은행장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및 금융 페스티벌 자리 기조 연설에서 말하였음.
- Warjiyo 총재는 우선 인도네시아의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화한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 Standard : QR인도네시아표준)이 코로나19 이후에 인도네시아 경제 부문의 이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올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실시간 신속 결제를 도입하여서 소매 지불 경제가 국가 결제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총재는 인도네시아 은행권과 금융기관들이 बैं킹을 디지털화하고 API를 개방하여서 전자상거래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음.
- 한편, 중앙은행과 함께 복지부는 사회 복지 제도의 디지털화를 구축하여서 사회 복지 지원이 각 지방에서 집행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음.
- 총재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을 마련하여서 기존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음. 허가를 가속화하고, 산업 부문을 개혁하고 창의성을 지원하면서도 위험관리와 사이버 보안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향임.
- Warjiyo 총재는 2020년 253조 루피아에서 2021년에는 337조 루피아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맞춰 전자적 화폐 거래가 2020년 201조 루피아에서 2021년 266조 루피아로 3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러한 변화가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3월 소비자 신뢰지수 93.4로 상승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음. 라마단-르바란 기간 이후에도 현재의 긍정적인 심리가 지속된다면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반등세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음(1월 84.9, 2월 85.8, 3월 93.4). 이러한 소비자 신뢰지수의 개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접종 계획의 진전과 함께 향후에는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미래에 대한 경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전월의 106.5pt에서 114.1로 강화되었음. 소비자들은 향후 6개월 동안에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사업 확장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월의 65.1pt에서 상승한 72.6pt를 기록하였음.
- 중앙은행은 매월 소비자들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경제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는데 100pt보다 아래 있을 경우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100pt보다 높을 경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



산업부, 플라스틱 재생 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산업부 장관은 플라스틱 재생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환경에 대한 보호 측면 뿐만이 아니라 국내 플라스틱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되고 있는 자원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였음.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재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 플라스틱 재생 산업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을 주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 장관은 말하였음. 플라스틱 재생 산업을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고, 국내 경제의 플라스틱 산업의 하부 산업 구조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으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음식 및 음료수의 포장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장관은 지적하면서도 만약 이러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생 산업의 중요성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음.
-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의 원재료용 수요는 매년 720만 톤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부문은 이러한 플라스틱 수요 가운데 230만 톤 정도만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또한 플라스틱 재생 산업은 매년 200만 톤의 수요가 있는 반면 91.3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108.7만 톤은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플라스틱 재생 산업 확대를 통해서 수입산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또한 이러한 산업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400만명 가량의 신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경제 조정 장관, 2024년까지 중기 대출 비중 30%로 증대 목표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REPUBLIK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까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무담보 신용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외부 보증기관의 한도를 높이며, 이자 보조 등의 조치를 검토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까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가 은행권의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 목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고 경제 조정장관은 발표하였음. 현재는 아직 전체 대출의 20% 수준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5천만 루피아 수준인 무담보 소액 신용 대출의 한도를 1억 루피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소액 신용대출의 범위도 5억~10억 루피아에서 5억~20억 루피아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
- 이러한 중기 대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생존해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용 협회(Askrindo)와 인도네시아 신용 보증 기금(Jamkrindo)의 보증 한도를 높이거나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NERP)와 별도로 신용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이자 보조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5G 지원을 위한 5개 정책 강조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REPUBLIK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아직 5G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입 전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분배할지, 5G 위에서 어떠한 사업모델과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재 양성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5G 도입과 운영을 위한 5가지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 시너지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5G 도입과 관련한 5개 정책 부문은 규제, 주파수 대역, 사업 모델, 인프라, 생태계 구축임.
- 규제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주파수 대역을 도입에 대해서 현재 8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음. 정보통신에 대한 제1999-36호 특별법, 정보 및 전자 거래에 대한 제2008-11호 법안을 개정한 제2016-19호 법안(UU ITE),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안 제2020-11호,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제2000-52호 정부령 등임. 여기에 5G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규정으로는 주파수 대역 및 위성 궤도 이용에 대한 정부령 제2000-53호, 우편, 정보통신, 방송에 대한 정부령 제2021-46호,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안, 그리고 실행 규칙 측면에서 정보통신부 장관령 등임. 5G 시대에 데이터의 이용 및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IoT 서비스를 위한 센서를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간 시너지가 필요함.
-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Plate 장관이 5G를 도입하면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차량업종 등 수직적 연관이 있는 산업에서의 사업 모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5G 서비스의 잠재력은 단순히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과 기계, 그리고 기계간의 통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 한편, 인프라, 통신망, 그리고 전체 인프라가 5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5G의 핵심 인프라는 3가지 인데 광섬유 네트워크 망과 광섬유 가속의 통로로써 BTS Tower와 효율성, 그리고 도시계획의 규정화 등임.
- 생태계 측면에서는 5G가 국내 잠재력을 끌어올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5G 기기에서의 국내 콘텐츠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 정보통신부는 산업부와 함께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4G네트워크에서는 국내 콘텐츠의 수준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생태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스스로 5G에 적합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임. 이를 위해서 Multimedia 대학이나 Digital Talent 장학제도 등 관련된 능력들을 가진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 성장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 힘입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도 투자 재개에 나서면서 올해 성장률은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진자수의 감소와 정부의 지원으로 산업계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며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았음. 인도네시아 제조업 지표, 소매판매 지표, 시멘트 소비, 전력소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흐름 등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은 +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기업가들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량에 대한 사치세의 완화 및 부동산 업종과 관련한 정부부과 부가가치세 등의 완화 등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제 지표의 개선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의 흐름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개선되면서 사업계의 투자 활동 재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차량 산업은 150만 명의 직접 고용과 450만 명의 간접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GDP에서 700조 루피아를 기여하고 있는데, 정부의 차량 사치세 관련 완화에 힘입어서 정부와 산업계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편성한 699.43조 루피아의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PEN) 가운데 184.43조 루피아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편성해두었음.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자율 보조, 보증료 지원, 세금 감면, 채무 재조정 등 6개 중소기업 부양책을 집행하였음.